**동몽수지(童蒙須知) 한글번역**

머리말

- 지은이는 알 수 없으며, 조선시대 동몽수지를 펴내면서 쓴 글로 추정됨

회암선생이 말하기를, “무릇 어린이의 배움은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신을 신는 일에서 시작하며, 다음에는 말과 걸음걸이에 이르고, 다음에는 물뿌리고 먼지를 쓸어서 정결히 하는 일에 이르며, 다음에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과 자질구레한 할 일들에 이르나니,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제 이를 차례대로 조목에 열 거하고, 이름하여 《동몽수지》라고 했다.

제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어버이를 섬기고, 사물에 접하며, 도리를 궁구하고, 천성을 다하는 요도 같은 것은 성현의 경전의 가르침 속에 뚜렷하게 상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차례로 깨우칠 수 있으니, 여기에서는 자 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회암(주희朱熹 또는 주자朱子)

**동몽수지(童蒙須知)**

- 주희朱熹(중국 남송시대 대학자) 지음

**1. 옷과 갓과 신**

대체로 사람이 됨에는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정제해야 하니, 관·두건·옷·신·버선으로부터 모두 반드시 매만지 고 애호하여 항상 정결하고 정제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선인께서 늘 자제들을 훈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남자 는 세 가지 단단히 매는 것이 있다.”하셨다. 머리를 매고, 허리를 매며, 다리를 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머리는 두건을 쓰는 것을 말함이니, 관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댕기를 따는 것을 말하고, 허리는 실띠나 띠로 허리를 묶 는 것이며, 다리는 신과 버선을 신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단단히 매야 하지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 느슨하면 몸이 풀어져서 몸가짐이 단정·엄숙하지 못하여 남이 가벼이 여기고 천히 여기는 바 된다.

무릇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먼저 옷깃을 당기어 가지런히 하고, 두 섶을 여미고 띠를 매어서 빠짐없게 하며, 음식을 먹을 때는 이를 관리하여 더럽히지 말며, 길을 갈때는 앞뒤를 살펴서 진흙이 튀거나 진창에 적시지 말 아야 한다.

무릇 옷을 벗을 때는 반드시 가지런히 차곡차곡 접어 상자 않에 쌓아두어 흩어지게 하지 말아야 먼지나 티끌 에 더럽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찾아 입기 쉬우며 흩어지거나 잃어지지 않는다. 옷을 입은 지 이미 오래면 때묻어 더럽혀짐을 면치 못하니, 반드시 자주 빨아야 한다. 해지면 기워야 하며 누덕 누덕 기워도 해롭지는 않으나 다만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한다.

무릇 세수할 때는 수건으로 옷깃을 가리고 두 소매를 걷어올려서 젖지 않게 한다.

무릇 일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겉에 껴입는 옷을 벗고 짧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어서, 이를 애호하여 더럽혀 지거나 손상되지 않게 한다.

무릇 낮에 입었던 옷을 밤에 잠잘 때 반드시 갈아 입으면 벼룩이나 이가 꾀지 않고 쉬 떨어지지도 않으니, 진실 로 이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위의가 본받을 만할 뿐만 아니라, 옷도 허비되지 않는다. 안자는 한 벌의 여우 갖옷 으로 30년을 입었다. 비록 그 뜻이, 검소한 생활로 세상 풍속을 교화하려는 데 있다지만 그 옷을 사랑하며 아 낌이 또한 방도가 있는 것이다. 이는 몸을 가장 잘 장식하는 요도이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2. 말과 걸음걸이**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반드시 목소리를 나직이 하고 숨을 가라앉혀서 말을 상세하고 느리게 할 것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허튼 소리로 시시덕거려서는 안되며, 부형이나 웃어른이 가르치고 타이르는 말씀이 있으면 다만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일 뿐, 함부로 의논해서는 안된다. 웃어른의 단속이나 책망에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명해서는 안된다. 참고 잠잠히 있다가 한참 시간이 경과된 뒤에 천천히 입을 열어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하기를, “그 일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우연히 잊었었습니다.”고 하거나 또 혹 말하기를, “우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고 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한다면 어른의 마음을 손상시 키거나 거슬리지 않고 사리가 스스로 분명해질 것이다. 벚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무릇 남의 선하지 못한 것을 들으면, 아래로 비복의 잘못에 이르기까지도 마음속에 감추어두어서 소리내어 남 에게 말하지 말고, 마땅히 상대방에게 충고하여 그 허물을 알아서 고치게 해야 한다.

무릇 걸음걸이와 추창하는 것은 반드시 단정해야 하고 빨리 달리거나 껑충 뛰거나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만약 부형이나 웃어른이 부르시면 마땅히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동작을 느리게 해서는 안된다.

3. 청소

무릇 사람의 자제된 자는 그 거처하는 곳을 청소하고, 책상 위의 먼지를 털고 닦아서 정결하게 하며, 책·붓·벼 루 등 모든 기구를 엄숙하게 정제하여, 두는 곳이 일정한 장소가 있어서 꺼내 쓰기를 마치면 다시 제자리에 두 게 해야 한다.

무릇 부형이나 웃어른이 일을 보는 곳에 혹 책이나 글을 쓴 종이 따위가 흩어져 있으면 마땅히 마음을 써서 정 리할 뿐이고, 문득 스스로 집어다가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릇 남의 책을 빌렸으면 모두 장부에 올려 주인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창이나 벽, 책상이나 책에는 글자를 써서는 안된다. 선배가 말하기를, “붓을 파괴하고 먹을 더럽힘은 제자의 직책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책상이나 벼루에다 글자를 쓰는 것은 스스로 그 얼굴에 자자하는 것이다.”고 했으 니, 이것은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이다.

**4. 독서와 글자 쓰기**

무릇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을 정돈하여서 정결·단정하게 하고, 책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나서 몸의 자 세를 바르게 하고, 책을 대하여 천천히 글자를 보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는다. 반드시 글자 하나하나를 똑 똑히 읽어서 한 글자라도 틀리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뒤집지도 말며, 억지로 끌어대서 암기 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여러 번 외운다면 자연히 입에 올라서 오래도록 잊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 하기를, “글을 천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했다. 읽어서 마음에 젖으면 해설을 기다리지 않고도 그 뜻을 저절로 깨닫게 됨을 말한 것이다. 내 일찍이 독서에도 삼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심도·안도·구도를 말한다.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눈이 자세히 보지 못하고, 마음과 눈이 전일하지 못하면 다만 건성으로 읽을 뿐이니 결코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한 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삼도 중에 심도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이미 이르렀더면 눈과 입이 어띠 이르지 않으랴.

무릇 책은 반드시 애호하여야 하고, 찢거나 더럽히거나 구기거나 접어서는 안된다. 제양에 사는 강록이라는 사람은 글을 읽어서 아직 마치지 못했을 때는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을 덮어 정리한 후에야 일어났 다고 한다. 이는 가장 본받을 만한 것이다.

무릇 글자를 쓸 때는 글씨가 잘되고 못된 것을 물을 것이 없고, 반드시 한 붓, 한 획이 모두 엄정하고 분명해야 하며 갈겨써서는 안된다.

무릇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글씨본을 자세히 보아서 어긋남이 없게 해야 한다.

**5. 행해야 할 작은 일들**

무릇 자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한다.

무릇 떠들고 싸우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무익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음식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죽이든 밥이든 굶주림만 채우면 되고, 굶지는 말 아야 한다.

무릇 불을 향할 때는 불 곁에 바짝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행동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똣 옷을 태우 는 것도 방비해야 한다.

무릇 서로 읍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한다.

무릇 부모나 웃어른 또는 벗을 대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대야 한다.

무릇 웃어른을 부를 때는 그 자를 불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아무 어른이라고 해야 한다. 타성의 어른에 대해서 는 아무 성, 아무 어른이라고 해야 한다.

무릇 외출하거나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웃어른 앞에 나아가 읍해야 한다. 비록 잠깐 나가더라도 또한 마찬가 지이다.

무릇 웃어른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가볍게 먹고 천천히 삼켜서 먹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릇 어른을 곁에서 모실 때는 반드시 가볍게 먹고 천천히 삼켜서 먹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음식을 먹는 예절은 많고 적은 것과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여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무릇 어른을 곁에서 모실 때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서서 두 손을 마주잡아야 하며, 물으시거든 반드시 성실하 게 대답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문을 열거나 발을 걷어올릴 때는 반드시 천천히 손을 가볍게 놀려서, 진동하여 사람을 놀래는 소리를 내 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여러 사람이 앉았을 때는 반드시 몸을 여미어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웃어른을 모시고 외출할 때는 길을 가면 반드시 길 오른쪽에 있어야 한고, 멈추면 길 왼쪽에 있어야 한다.

무릇 술을 마실 때는 취하기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무릇 변소에 갈 때는 반드시 웃옷을 벗고, 나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무릇 밤에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가고, 등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무릇 종을 대할 때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하여 그들과 농지거리를 하지 말며, 그릇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단 정하고 엄숙하여 오직 떨어뜨릴까 걱정해야 한다.

무릇 위험한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무릇 길에서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바른 자세로 서서 공수하고, 종종걸음으로 그 앞에 가서 읍해야 한다.

무릇 밤에 잠잘 때는 반드시 베개를 베고, 잠옷으로 머리를 뒤집어쓰지 말아야 한다.

무릇 음식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들면 반드시 젓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들면 반드시 숟가락을 놓으며, 먹기를 마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상 위에 놓아야 한다. 행해야 할 작은 일들의 품목은 매우 많으나 이제 그 대략만을 들었다. 그러나 대개 갖추어졌다. 이 다섯 편을 능히 준수하여 어기지 않는다면 근신하는 선비가 되는 데 실수가 없을 것이고, 또 능히 성현의 글을 읽어서 마 음을 넓혀 덕에 나아가고 업을 닦는다면 대현·군자의 지경에 들어가는 데 어려울 것이 없으니, 너희들은 마땅 히 힘쓸지어라.

**독서의 중요한 길**

- 작자미상

주자가 말하기를, “읽는 경서의 글은 많은 것을 탐내고, 넓은 것을 힘써서 공부가 거칠며, 글을 잠깐 보고서 곧 통달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곧 그 이치를 생각해보고, 생각해도 통하지 못 하면 작은 책자 하나를 마련하여, 이것을 하나하나 뽑아 베껴두고 때때로 살펴보고 연구할 것이며, 결코 호도 하여서 모르는 것을 그대로 덮어두어서는 안된다. 질문하기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몸이 마칠 때까지 깨닫지 못 하며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했다.

이용촌의 독서법에 말하기를, “무릇 글에 있어서 눈으로 스치고 입으로 스치는 것이 손으로 스치는 것만 못하 다. 대체로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이에 따르니, 비록 스무 번 읽어도 손으로 한 번 베끼는 효과만큼 크 지 못하다. 능히 같고 다름을 살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의심나는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변론에 붙인다면 깊은 지혜가 더욱 깊어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질 것이다.”고 했다.

고반룡은 말하기를, “사람은 재주 없음을 근심하지 말지니, 지식이 늘면 재주도 는다. 견해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지니, 사고가 넓어지면 견해도 넓어진다. 이는 모두 배움에서 얻는 것이다.”고 했다.

조중봉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여 옷과 신이 모두 해져도 스승을 좇아서 비바람을 가리지 않았다. 해 마다 벼 익을 때가 되면 전지 사이에서 묵으며 지켰는데, 동접 몇 사람이 좇아와서 각자 그 읽는 글을 읽었다. 밤이 깊어 동접이 모두 누워서 잠들어도 선생은 글읽기를 그만두지 않았으며,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가도 첫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서 읽었다. 소를 칠 때는 소가 목초를 따라가면, 반드시 손에 책을 잡고 한쪽으로 따라 가면서 한 편을 읽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삿갓 밑에다 책을 펴놓고 잠심하여 사색에 잠겼다. 날마다 땔나무 를 해다가 어버이의 방에 불을 땠는데, 그때마다 불빛에 책을 비쳐보곤 했다. 농토의 밭두둑 사이에 시렁을 만 들어서 책을 올려놓고, 쉴 때면 읽었다.

하흠은 말하기를, “지금의 독서는 다만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얻는 것이 없다.”고 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 를, “독서하는 여가에 울타리를 엮고, 담을 쌓고, 뜰을 쓸고, 거름을 치고, 말을 먹이고, 도랑을 치고, 쌀을 찧 는 등의 일을 때때로 한다면 몸이 굳세어지고 뜻도 정해질 것이다.”고 했다.